“광주형일자리 안착·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

■ 광주·전남 경제계,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바란다

영세 소상공인 특성화골목 육성·사회보험료 지원도
벤처기업 공제제도 도입 창업자 재도전 환경 조성을

광주·전남지역 경제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 경제에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을 하루 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뜻을 모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국회에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분위기다.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는 광주·전남 지역발전을 위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자동차 특화 빛그린산단의 성공적인 조성 등 광주·전남 주요 현안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게 광주상의 측 설명이다.

또 광융합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조속 추진, 광주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로 우선 광주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꼽았다.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과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광주·전남 에너지 산업융합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 등도 포함됐다.

침체된 경기에 이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등 현장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광주 경제계가 올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 현안과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라며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전남 중소기업들도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21대 국회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전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지원과 소상공인 특성화골목 육성·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생태계를 위해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등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과 상생협력법 보완을 통한 대중기상생협력 지원계획 마련,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꺾기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경영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벤처기업들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창업자 공제제도 도입 등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 일원화, 벤처기업 육성 3개년 종합계획 수립시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참여 등 21대 국회가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길 기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점포 3만개 인하·동결
전남 대상 점포 3893곳 2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9일 기준 전국 5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상가에서 임대인 3425명이 총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참여한 임대인 수가 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47명), 경남(461명), 경기(20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 점포 수는 전남이 3893곳으로 서울(1만455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3171곳), 제주(2427곳) 등 순이었다.

임대인 수 기준으로 볼 때 인하율은 20~30%인 경우가 많았고, 임대료 인하 기간은 주로 2~3개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임대인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실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중기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전체 점포의 20% 이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 노후전선 교체 등 화재 안전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나라장터 ‘공공물자 특가대전’서 2139개 품목 할인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의 물품을 최대 54% 싸게 살 수 있는 ‘공공물자 특가대전’이 이달 20일부터 5월15일까지 열린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이 기간 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174개사 2139개 물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게재된 업체와 연결해 직접 살 수 있다.

이들 상품 평균 할인율은 10.3%로, 일부 상품은 최대 54.5%까지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이번 할인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과 노트북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5만여 개 공공기관에 할인 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할 방침이며, 홈페이지·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할인 상품을 홍보한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판로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소상공인·중기 대출 55.5% 완료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55.5%)에 대해 대출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13일 기준으로 농협은행을 통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대출신청 금액 1700억원(4400건) 중 948억원(2700건)을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했다.

전남본부 측은 대출심사 중인 1700건(752억원)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남본부는 지난 달 26일부터 2주 동안 영업본부 직원 10여 명을 순천·목포·여수 등 8개 거점 점포에 파견해 코로나19 보증 접수 업무에 협력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연 1.5%의 초저금리 ‘NH소상공인 이차보전협약대출’ 자금지원은 이달 1일 출시 일주일 만에 5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영업본부는 지난 2월 전남신보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지자체에 2억5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돕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옥원·오른쪽 4번째)는 지난 2월 전남신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코로나에도 올 1분기 중기 수출 늘었다

중기부 수출동향,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242억 달러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42억 달러(29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총수출의 56.9%를 차지하는 상위 5개국 시장으로 수출이 0.02% 늘었다.

중국(-4.8%), 일본(-1.6%), 홍콩(-5.5%)은 감소한 반면, 미국(8.0%)과 베트남(4.9%), 대만(20.8%), 러시아(4.0%)는 증가했다.

중기부는 1분기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는 국가별 수출여건이 중소기업 수출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20대 품목 중 기타섬유제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4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1~2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2100만 달러(25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신장했다.

1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6만2396개사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0.6% 포인트 상승한 18.5%였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1.2% 증가했으나 2월과 3월은 각각 5.1%, 2.1% 감소했다.

1분기 조업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일 증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 시설 봄배추 재배 7%↓ 무 38% ↑

전국 재배면적은 증가

올해 호남지역 시설 봄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6.5% 줄고,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시설봄배추·무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전국 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490ha, 봄무 면적은 38.7% 증가한 141ha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시설 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 겨울배추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 기대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호남지역은 오히려 줄었다.

호남지역 봄배추 면적은 48ha로 전체(490ha)의 9.8%를 차지했다.

연구원 측은 “호남지역은 지난해보다 7% 정도 봄배추 면적이 줄었다”며 “이는 쌈배추, 시설 봄무 등으로 작목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청 면적은 지난해보다 20.3% 증가한 261ha로 가장 넓었다. 경기 145ha(전년비 7.8%↑), 기타 36ha(9.1%↑) 등이 뒤를 이었다.

나주·고창 등 호남지역이 주산지인 시설 봄무 재배면적은 37.7%나 증가한 101ha로 조사됐다.

호남 봄무 재배면적은 전체(141ha)의 71.6%에 달한다. 영남지역 재배면적도 44.0% 증가한 29ha를 나타냈다.

시설봄무는 지난해 출하기 가격이 낮았던 고구마, 수박 등에서 작목이 전환된 것으로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재배면적 실측 결과는 관측월보를 통해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주요 농업관련 전문기관에 배포하며, 홈페이지(aglook.kre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